금주 법구

착한 벗이 좋기는 좋아도
바른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간다면 온갖 악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한다.

-불본행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1일 수요일(주간) 제292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황룡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지난달 15일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에띠엔(aeTEN.net)'이 개국됐다. 인터넷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국된지 얼마 안됐지만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호응 또한 높은 편이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 사이버포교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알려 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교계의 청소년 포교는 소책자와 행사 위주의 구태 의연한 포교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포교

겉치레식 행사-포교 지양 청소년 눈높이 프로 개발

현재 교계의 청소년 포교는 선재연구모임의 청소년 상담지 〈선재들의 속삼임〉,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무지개걸린나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파라미타〉 등 한손에 잡기에도 충분한 소책자들이 그나마 청소년 불자들의 활동 모습과 고민 등을 글로 알려 주며 포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 청소년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최근 활동 소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청소년들의 신행 정보와는 동떨어진 내용들 투성이다.

또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타청소년 협회 등 10여개의 청소년 단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행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행사들도 청소년들의 기호와 성향을 외면한채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의 기호는 변하고 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행사 취지에 맞지 않으면 눈을 돌려 버린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춰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할 수 있는 청소년 불교 사이트의 개설이 절실하다. 또 관리 소홀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계 사이트들이 각종 정보와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를 확보해 재단장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如是我聞 Yosiamun.com
불교세계의 길이 열립니다.
Tel:02) 737-0695 Fax:02) 737-0696
국내최대 인터넷 불교서점 여시아문 닷 컴

도난 문화재 찾기 경찰청 나섰다

도난문화재 DB구축 인터폴 등 연계 수사

범국민 캠페인 전개…교계 "성보 회수 기대"

도난 성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경찰청은 국내 최초의 도난 문화재·미술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난문화재 찾기 범국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문화재를 비롯한 예술품을 망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청이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미 연방수사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문화유산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한편 영국도난미술품등록센터, 박물관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 세계에 유출된 국내 문화재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난 성보의 행방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계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는 84년부터 지금까지 송광사 16국사진영(보물 제1043호)을 비롯해 총 473건에 이르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관련기사 16면)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미술품 경매회사인 마이아트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표준문화재등록 시스템인 '오브젝트 ID'를 이용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 색인해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물의 이름과 도난 일시 및 장소, 제작 연도, 원소유자, 사진 외에 유물의 재질과 기법, 실측, 특별 표기 사항, 특징, 제작자 등 6~7개의 항목이 추가된다.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사이트에 등록된 도난 문화재는 9월말 현재 1백36건 5천4백51점.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고 있는 데다 해외 사유재산 물품은 제외돼 있어, 여기에 일반 문화재와 그림, 조각 등 미술품을 추가하면 도난 문화재수는 수만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외유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해외유출문화재는 프랑스의 파리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해 7만4천548점에 이른다.

경찰청 이상식 마약지능계 계장은 "도난문화재에 관한 화상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그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사범의 경우 다른 조직범죄에 비해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도난 문화재를 추적하면 10%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북한불교 참여 공동노력"

한·중·일 합의서 채택…내년 대회 북경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중한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10월 25일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 3차 회의를 열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교류위원회 참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3국 불교대표들은 조선불교도연맹의 참여에 대해 "당사자인 조불련의 의사를 확인한 후 4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는 곧 조불련의 참여를 권유할 방침이다.

3국 불교대표들은 또 △각국 수행체험단의 상호 방문 △중국 서부지역 식수사업 참여 △4차 회의에서 3국 공통경전 제작 논의 △주요 분야 상설분과위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4차 회의는 내년 10월 23~25일 북경에서 '불교와 신세기의 평화'를 주제로 열기로 했다. 합의서는 각국의 수석대표인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도술인, 일중한국제불교교류위 이사장 고바야시 류소 스님이 서명했다.

3국불교교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5계를 호지하고 적극적인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생활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4일 3국의 불교대표와 천태종 신도 등 1천여명은 서울우면동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신세기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세 나라 불교의 우호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직장·직능 불자들 한자리 전국 직장·직능 120개 불자회 회원 3천여명은 10월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국 직장 직능 불자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직장 직능 불자들은 생명과 환경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5면)
사진=고영배 기자

교계현안 국회제출

조계종, 국감반영 당부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0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환경노동위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의견서를 통해 △전통사찰의 유지 보수와 종교활동을 위한 건축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 완화 △국립공원 내 사찰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각 공원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의 수립 △경기도 용인 장경사 인근 송전탑 건립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종단 소임자 자격검증 필요"

재가연대, 종회의장 출마자 등 문제제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0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승가대 부실공사와 관련,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인사들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출마예정자와 총무원 기획실장 임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재가연대는 이날 "현재 가장 유력한 중앙종회의장으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종회의원스님과 신임 기획실장스님의 경우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부실공사와 관련,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서 경영을 맡고 있던 소임자로서 마땅한 해명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종단의 선출직 및 임명직의 중요 소임자들에 대해 과거 행정이력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불합리한 과오를 반복할 개연성이 커 종단 소임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가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문제점이 확인된 바, 선거 과정상의 발전을 위해 후보자의 이력과 행적, 경영능력, 정책 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한 '공개적 토론 절차'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핸드폰에 불교 담았다

019 이어 017도 불교정보 서비스

本社, LG텔레콤·신세기통신 제휴…프리즘社 개발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주)LG텔레콤 및 신세기통신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0월 19일 019 서비스에 이어 11월 2일부터 017로도 다양한 불교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리즘 정보시스템社가 연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서비스는 핸드폰을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본사는 019, 017 서비스에 이어 더 많은 무선통신망과의 제휴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접속방법

017 무선인터넷에 접속, info Touch의 종교메뉴에서 불교정보 선택.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z-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 선택.

◆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알림방: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매일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핫 이슈 등을, 알림방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공지사항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담아지게 됩니다.

△공연 전시: 공연정보와 전시 정보를 나누어 제공하며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 전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법문에서는 현대 고승들의 법어를, 길을 묻는이에게서는 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신행상담 내용을 만날 수 있으며, '도' 단을 통해서는 귀감과 감동을 주는 명구들을 전해 줍니다.

△마음의 양식: 불교 책마당에서는 베스트 불서와 화제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카페: 게시판, 대화방, 법구와 운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퀴즈이벤트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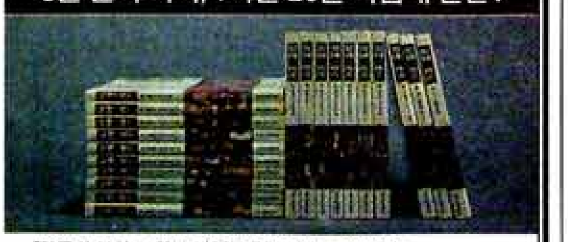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전전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12권 선암사 편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